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 말레이시아 오픈 ‘정상’

결승서 세계랭킹 2위 중국 왕즈이 2-0으로 제압
대기록 경신 순항…내일 인도오픈서 2관왕 조준

배드민턴 ‘세계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올해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1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중국·세계랭킹 2위)를 세트스코어 2-0(21-15 24-22)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역대 최고 누적 상금(100만3175달러)을 모두 경신하며 여자 배드민턴의 새 지평을 연 안세영은 올해 첫 대회에서도 세계 최강의 위용을 뽐냈다.

특히 지난 2024년과 2025년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안세영은 이날 우승으로 대회 3연패 금자탑을 쌓았다.

오는 13일 인도오픈 출전을 확정된 안세영은 이로써 자신이 세운 대기록 경신을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은 단 한게임만 내준 채 우승을 따냈다. 대회 32강전에서는 미셸 리(캐나다·세계랭킹 12위)과 1시간 15분 혈투 끝에 역전승을 따냈다.

이후에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16강전에서 오쿠하라 노조미(일본·세계랭킹 30위)를 2-0, 8강전에서 리네 회이마르크 케르스벨트(덴마크·세계랭킹 26위)를 2-0으로 완파했다. 4강전에서는 ‘천적’ 전위페위(중국·세계랭킹 4위)가 경기를 앞두고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곧바

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결승전 상대는 왕즈이.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통산 16승 4패로 압도적인 전적을 기록한데다, 지난해 8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왕즈이를 제압하면서 최근 9연승의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게 됐다.

1게임은 쉽지 않았다.

안세영은 초반 상대에게 5연속 득점을 내주면서 1-6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곧바로 4점을 연속으로 따내면서 맹렬한 추격에 나섰다. 8-8 동점을 만든 이후에는 중반까지 시소게임을 이어졌다. 11-11 상황 안세영은 상대의 범실로 12-11 역전에 성공했다.

분위기를 가져온 안세영은 거침이 없었다. 5점을 내리 따낸 그는 17-11로 크게 달아났다. 왕즈이는 2점을 추격하며 균형을 맞추려고 했으나, 안세영은 단단했다. 19-15에서 안세영이 2득점을 올리면서 1게임은 끝이 났다.

2게임 역시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다.

안세영은 8-7로 앞서던 상황에서 내리 7점을 실점하며 왕즈이에게 주도권을 내줬다. 하지만 안세영의 반격이 매서웠다. 13-19로 패색이 짙던 상황에서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순식간에 6점을 몰아쳐 19-19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결국 승부는 듀스로 이어졌다. 20-20에서 시작해 세차례나 동점이 반복되는 혈투 끝에 23-22로 역전에 성공한 안세영은 날카로운 대각 크로스로 상대 코트를 찌르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안세영이 11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대5종 유망주들, 해남서 미래 국가대표 꿈꾼다

꿈나무 선수단, 동계 합숙훈련
전지훈련 메카 자리매김 눈길

근대5종 국가대표를 꿈꾸는 유망주들이 ‘전지훈련 메카’ 해남에서 동계합숙훈련에 돌입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1일 전남근대5종연맹에 따르면 최근 근대5종 국가대표 꿈나무 선수단 22명이 해남 우슬경기장에서 동계합숙훈련에 돌입, 오는 18일까지 기량을 다듬는다.

2025 꿈나무 동계합숙훈련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근대5종연맹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으로 실시된다. 이번 동계 합숙훈련에는 남자 선수 8명, 여자 선수 9명과 지도자 4명, 트레이너 1명 등 총 2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문 지도자들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체력 강화와 기초기술 점검, 종목별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남근대5종연맹은 이번 꿈나무 동계합숙훈련을 시작으로 13일부터 24일까지는 미래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을, 2월 2일~14일은 국가대표 선



근대5종 국가대표 꿈나무 선수단 22명이 최근 해남 우슬경기장에서 동계합숙훈련에 돌입, 오는 18일까지 기량을 다듬는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수단 전지훈련을 차례로 해남에 유치·운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전남근대5종연맹과 해남군은 꿈나무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단계별 선수 육성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해남을 중심으로 한 전지훈련 인프라 확대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온화한 겨울 기후와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갖춘 해남은 매년 전국 각지의 선수단이 찾는 전지훈련 최적지로,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해남은 근대5종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에서

전지훈련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동운 전남도청 근대5종팀 감독 겸 전남근대5종연맹 전무이사는 “전지훈련 선수단의 전남, 해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동계합숙훈련을 통해 꿈나무 대표선수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갈 핵심 선수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훈련 시설 제공과 제반 여건 조성에 협조해 준 해남군에 무엇보다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H리그 女 개막전 SK에 24-32 패 5골 5도움 강주빈·11세이브 이민지 활약 빛바래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H리그 개막전 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의 벽을 넘지 못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0일 경기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개막전에서 SK슈가글라이더즈에게 24-32로 패배했다.

최근 두 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광주도시공사는 올해 개막전에 앞서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을 단행했다.

부상으로 이탈한 기존 주장 서아루 대신 김금정이 새로운 주장 완장을 찼다.

이어 리그에서 10년 이상 활약한 이효진과 최수지, 합지선, 강주빈 등 베테랑들을 영입하며 신구의 조화를 꾀했다.

올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내건 광주도시공사는 개막전에서 통합 2연패 팀인 SK에게 패배하며 시즌 첫 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이날 경기에서는 강주빈이 5골(공격성공률 83.3%)·5도움으로 맹활약했다.

이어 연지현이 4골(공격성공률 66.7%)·4도움, 김지현이 4골(공격성공률 44.4%)·4도움 등을 기록하며 분전했다.

골키퍼 이민지 역시 11세이브(방어율 28.2%)로 클러치 상황에서 제 역할을 다 했지만, 결과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날 선수단은 실책 12개를 쏟아내는 등 아직 손발이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전반전 초반 광주도시공사는 상대에게 선취점을 내준 뒤, 김하경과 강은혜의 공격을 이민지가 선방해냈다.

이어 이효진이 9m와 돌파 득점에 성공했고, 연지현까지 6m 득점을 올리면서 추격에 나섰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가 연달아 실책을 기록하면서 SK가 4-7로 앞서나갔다.

이민지는 이후에도 꾸준히 선방했고, 강주빈이 연속골을 기록하며 격차를 좁혔다. 전반 막바지에는 SK가 빠른 속공으로 5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9-15로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에도 경기 양상은 비슷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연이어 실책을 범했고, 그 기회를 상대가 잘 날아챘다. 11-19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김지현과 강주빈이 분전하며 19-25까지 따라붙었다.

그러나 SK가 한미슬의 2분 퇴장에도 불구하고 박조은의 선방에 힘입어 21-31로 승기를 잡았다. 결국 김단비의 중거리까지 적중하면서 24-32로 광주도시공사가 고개를 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사무처 직제개편’ 광주시체육회, 전문·효율성 강화

사무처·2본부·4부·12팀·1연구원…기획홍보팀 신설 등 변화

광주시체육회가 병오년 새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성과 혁신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개편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체육회 조직 전반 업무의 전문화·효율화·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사무처 직제를 개편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인사 17면

먼저 기획경영부 내에 전략기획, 성과관리, 대외홍보, 언론대응 등의 기능을 통합해 조직의 핵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홍보팀을 신설했다.

또 기존의 총무 기능을 인사총무팀으로 재편해 인사, 조직관리, 사무행정 등의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업무를 목적별로 분리해 전문체육부에 대회운영팀과 체육지원팀을, 생활체육부에 생활체육팀과 스포츠마케팅팀을 두고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또 법무감사실과 안전관리팀을 독립 부서로 통합해 감사·법무·인권·안전관리 기능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부여했다. 시설부는 염주시설, 월드컵시

설, 무동시설, 진월시설팀으로 부서명칭만 변경해 기존대로 운영한다.

시체육회는 1사무처, 2본부, 4부, 12팀, 1연구원으로 직제를 개편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맞춤형 전보를 실시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에 속도를 내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담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고 혁신을 도모하고자 직제개편과 전보인사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했다”며 “이번 개편이 오직 시민과 선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이 되리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다문화가족 지원…주말 야구체험캠프 실시

KIA타이거즈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야구체험캠프 ‘2026 KIA 타이거즈 유스 베이스볼 캠프’를 개최한다.

KIA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광주, 전남, 전북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25명을 대상으로 주말 야구체험캠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첫 선을 보인 뒤 해마다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 내 올해도 뜻깊은 행사를 이어가게 됐다.

야구체험캠프는 오는 31일부터 2주에 걸쳐 4회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챔피언스필드와 챌린저스필드의 선수단 훈련 시설에서 야구를 배우게 된다. 프로그램은 야구 규칙 설명부터 기초 체력훈

련, 기본기 훈련, 게임 등으로 구성됐다. 캠프 MVP로 선정된 참가자는 홈경기 시구자로 초청된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먼저 유니폼 세트와 야구용품이 지급되며, 캠프 기간 중 챌린저스필드의 선수단 식당에서 점심식사로 제공된다. 또 올 시즌 홈 경기에 참가자와 가족들을 초대해 단체관람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 다문화가족의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신청순 25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이며, 모집이 완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